이범호, 전격 은퇴선언…내달 13일 한화전서 은퇴식

2000년 한화서 프로 시작…日 거친 뒤 KIA서 9시즌
통산 타율 0.271·홈런 329개…만루 홈런 17개 1위
"지도자의 길 걷겠다"…오늘부터 2000경기 출장 도전

"야구를 누구보다 사랑했던 사람으로 기억해주시면 좋겠습니다."

KIA 타이거즈의 내야수 이범호(38)가 은퇴를 결정했다.

이범호는 최근 구단과의 면담을 통해 현역 생활을 마무리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구단도 그의 뜻을 받아들이면서 오는 7월 13일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리는 한화전에서 이범호의 은퇴식이 진행된다.

은퇴는 결정했지만 선수 이범호의 시간은 아직 남아있다. 이범호는 19일 KIA 선수단에 합류해 2000경기를 향한 남은 도전을 이어간다.

2000년 한화 유니폼을 입고 프로 생활을 시작한 이범호는 2010년 일본 무대를 거쳐 2011년 KIA 선수로 KBO리그에 복귀했다. 그리고 올해까지 KIA에서 9시즌을 보내면서 1995경기에 나왔다.

통산 타율은 0.271, 329홈런으로 개인 통산 홈런 5위에 올라있다. 특히 만루 상황에서 17차례나 담장을 넘기면서 '만루 사나이'로 통한다. 만루 홈런 2위는 심정수의 12개. 1125타점도 기록하면서 개인 통산 타점 8위에도 이름을 올렸다.

KBO리그에 많은 기록과 이름을 남긴 선수지만 이범호는 기록이 아닌 사랑과 열정에 의미를 부여했다. 이범호는 "앞서 뛰어난 선배님들이 많은 기록을 남기셨다. 내가 거기에 미치지 못하지만 야구에 대한 사랑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야구를 좋아해서 시작했고, 많이 사랑했다. 야구에 대한 사랑을 기억해주시면 좋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범호는 올 시즌을 시작하면서 '은퇴'를 이야기했었다. 자신의 20번째이자 마지막 무대를 시작했지만 결과는 좋지 못했다. 햄스트링 부상으로 캠프에서 중도 귀국했고 4월 9일 처음 엔트리에 등록됐었다. 그리고 5월 1일 엔트리에서 말소되면서 고민의 시간을 보냈다.

이범호는 "마지막 시즌이라 생각하고 준비했는데 결과가 좋지 못했다. 고민 끝에 후배들과 팀의 미래를 위해 은퇴를 결정했다. 내가 비켜줘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했다"며 "그래도 2000경기에 도전할 수 있게 됐다. 선수로서는 이룰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이루고 가게 되는 것 같다.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야구 시작점인 한화 그리고 마지막 팀인 KIA 선수들 앞에서 야구 선수 마지막 날을 보내게 된다.

이범호는 "타이거즈 출신이 아닌데 구단에서 많은 배려를 해주셔서 은퇴식을 하게 됐다. 이종범 선배 이후 첫 단독 은퇴식이라는 점도 영광스럽다. 무엇보다 팬분들이 타이거즈 선수로 인정해주시고 사랑해주셔서 행복했었다"며 "또 나의 야구가 시작된 곳은 한화다. 한화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성장했다. 내가 어렸을 때 함께 야구를 했던 한용덕 감독님, 송진우 코치님들 내 야구 인생에 의미 있는 분들 앞에서 은퇴식을 하게 됐다. 많은 사랑을 받고 떠날 수 있게 돼서 기쁘다"고 언급했다.

아직 선수 이후의 삶에 대해 확실하게 결정된 것은 없다. 하지만 가장 사랑했던 그라운드에서 좋은 선수들을 육성하면서 야구 발전에 이바지하고 싶은 게 그의 꿈이다.

이범호는 "아직 선수로 역할이 남아있기 때문에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선수 역할이 끝나고 난 뒤에는 공부를 많이 하고 싶다. 일본과 미국 등에서 야구를 넓게 배우면서 좋은 지도자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또 "요즘 후배들을 보면서 많이 배워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 요즘 선수들은 야구를 많이 안다. 지도자와 선수의 관계도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 선수들이 다가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것 같다. 선수들의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지도자들이 많이 배우고 알아야 한다"며 "선수들의 대리인으로 먼저 넓게 보고 배워서 이야기를 해주고 싶다. 좋은 지도자, 멋있는 야구를 위해 공부하고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깜짝 등장' 김병헌 "햄버거 배달 왔어요"

덕아웃 T 톡톡

▲**열정에 집중했습니다** = 18일 KIA와 SK의 경기가 열린 챔피언스필드에서는 올스타 선수단 투표가 진행됐다. 1군 엔트리에 등록된 선수들과 코칭스태프들은 경기장 인터뷰실에 마련된 투표 장소를 찾아 신중하게 '소중한 한표'를 행사했다. KIA 이창진은 투표가 끝난 뒤 "열정 있는 선수들을 찍었다"고 웃었다. 김주찬은 "성적을 기준으로 찍었다"고 투표 기준을 이야기했고, 홍건희는 "공평하게. 제가 아는 선수를 찍었다"고 말해 사람들을 웃겼다.

▲**우리 선수들이 없네** = 18일 챔피언스필드를 포함해 전국 5개 구장에서 진행된 올스타 선수단 투표. KBO는 팀별로 10개의 투표용지를 따로 준비했다. 소속팀 선수에는 투표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었다. 경기장 도착과 함께 투표장을 찾은 SK 염경엽 감독은 투표 용지를 받은 뒤 "우리 선수들이 없네. 우리 선수들도 다 찍으려고 했는데"라면서 웃음을 터트렸다. KIA 포수 한승택도 "다 KIA로 뽑으려고 했는데 안 된다더라"며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사람들 호감가는 사람들을 뽑았다"고 말했다.

▲**배달왔어요** = '핵잠수함' 김병현이 18일 챔피언스필드에 깜짝 등장했다. 최근 광주에 '光州一고'라는 햄버거 가게를 연 김병현은 "배달왔다"며 웃었다. SK선수단의 주문이 들어와서 배달을 왔다는 김사장님. 최근 류현진 경기의 해설자로도 나섰던 김병현은 취재진으로부터 류현진에 대한 질문도 받았다. 올 시즌 류현진의 성공비결에 대한 질문을 받은 그는 "몇 년 하다가 부상을 당했는데 그걸 딛고 몸이 다 나아서 확실하게 내 공이 통하는구나 그것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또 컨트롤. 보면 알잖아요. 오락기 야구하는 것처럼 공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빠르게 던진다"고 자신감과 컨트롤을 류현진의 장점으로 꼽았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부산, 숨 막히는 1위 싸움

'K리그2' 승점 2점차 박빙…전남은 8위

프로축구 K리그2의 숨 막히는 1위 싸움은 계속된다.

부산아이파크가 지난 17일 안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린 2019 K리그2 15라운드 FC안양과의 경기에서 멀티골을 기록한 이정협의 활약을 앞세워 3-1 승리를 거뒀다.

7경기 연속 무패(5승 2무)에 성공한 부산은 올 시즌 전적 9승 4무 2패로 승점 31을 만들었다. 이와 함께 앞선 16일 4-1 대승을 거두며 15경기 연속 무패행진을 달린 광주FC(9승 6무·승점 33)를 다시 승점 2점 차로 추격했다.

광주 입장에서는 득점 격차를 1점 줄인 것에 만족해야 하는 15라운드 결과였다. 올 시즌 광주는 25득점을 기록하고 있고, 부산은 36골로 팀 득점 1위에 올라있다.

전반전을 소득 없이 마친 부산은 후반 33분 상대 핸드볼 반칙으로 얻는 페널티킥 상황에서 이정협의 골로 리드를 잡았다. 이정협은 6분 뒤에는 노보트니의 골을 도와 도움도 기록했다. 후반 시간 쐐기골에도 이정협이 있었다. 후반 47분 이정협은 왼발로 멀티골에 성공했다. 한편 골대 불운에 울었던 안양은 후반 49분 팔라시오스의 추격골을 기록했지만 승부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펠리페

전남드래곤즈는 '최하위' 서울이랜드를 상대로 1-0 승리를 거두며 8위로 한 단계 상승했다.

천안종합운동장을 찾은 전남은 전반 39분 나온 브루노 누네스의 왼발슛으로 선제골을 만들었다. 전남은 이후 추가골 사냥에는 실패했지만 1점의 리드를 잘 지키면서 2연패에서 벗어났다.

또 승점 3점을 보탠 전남(4승 3무 8패·승점 15)은 안산 그리너스와의 15라운드 경기에서 1-3으로 진 대전 시티즌(3승 4무 8패·승점 13)을 밀어내고 8위로 올라섰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월드컵 꾜 예선, 모래바람 피해야 꽃길

한국, 꾜 2차 예선 포트 1번 배정…내달 17일 도하서 조추첨
이란·일본·호주 등 강팀 피했지만 이라크·시리아 등 복병 가능성

"사막의 모래바람이 싫다.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다."

2022 카타르 월드컵 본선 티켓을 거머쥐기 위한 아시아 2차 예선이 오는 9월 펼쳐진다. 한국 대표팀의 속내는 쿠웨이트, 이라크 등 중동국가와 조우하지 않는 것이다.

아시아축구연맹(AFC)은 최근 FIFA 랭킹을 기준으로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포트(?) 배정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의 예선전 대진 팀은 다음 달 17일 카타르 도하에서 진행되는 조추첨결과에 따라 확정된다.

한국은 FIFA 랭킹(37위)에 따라 톱시드에 해당하는 1번 포트에 배정됐다. 1포트에 배정된 한국은 이란, 일본, 호주,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사우디, 중국 등 강호들은 피했다. 같은 포트의 국가는 2차 예선에서 조우할 일이 없기 때문이다.

정작 껄끄러운 상대들은 2포트에 자리 잡고 있다. '중동의 맹주' 이라크를 포함해 시리아, 신흥 강호로 떠오른 우즈베키스탄,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이 포함됐다. 3포트에는 북한을 비롯해 바레인, 태국 등이 있다. 4포트에는 중동의 복병 쿠웨이트가 있다. 홈앤 어웨이 방식으로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유독 중동 국가에 고전했던 한국에게는 부담스럽다.조 추첨 결과에 따라, 한국이 이들과 한 조에 묶일 경우 2022 카타르 월드컵을 향한 험난한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2차 예선은 AFC 소속 국가 중 FIFA 랭킹을 기준으로 추린 34개국과 하위 순위 12개국 중 플레이오프를 통과한 6개국 등 총 40개국이 참가한다. 5개 팀씩 8개 조로 나눠 내년 6월까지 진행한다. 각 조 1위 8개국과 각 조 2위 중 성적이 좋은 4개국 등 총 12개국이 최종예선에 진출한다. 최종예선에서는 12개국이 AFC 산하 국가에 배정된 4.5장의 월드컵 본선 출전권을 다툰다.

한편, 2022 카타르 월드컵은 1998년 프랑스 월드컵 이래 24년간 지속된 32강 본선 진출 체제로 치러지는 마지막 월드컵으로, 다음 대회인 2026년 대회부터는 48개국으로 출전국이 늘어난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여자 축구, 16강 좌절

프랑스 월드컵 노르웨이에 1-2 패…조별리그 최하위

2회 연속 국제축구연맹(FIFA) 여자 월드컵 16강 진출에 도전한 '윤덕여호'가 프랑스에서 3연패를 안고 아쉽게 대회를 마쳤다.

윤덕여 감독이 이끄는 여자 축구대표팀은 18일(한국시간) 프랑스 랭스의 스타드 오귀스트-들론에서 열린 노르웨이와의 2019 프랑스 월드컵 조별리그 A조 3차전에서 노르웨이에 1-2로 졌다.

이로써 한국은 조별리그 3경기 전패를 기록, 최하위에 그치며 프랑스를 떠나게 됐다. 2015년 캐나다 대회에서 1승 1무 1패, 조 2위로 사상 첫 월드컵 16강 진출을 일궈냈던 것보다 퇴보한 성적을 남겼다.

한국은 노르웨이와의 3차전 후반전 중반까지 한 골도 뽑아내지 못하며 사상 첫 '무득점 월드컵'의 불명예를 쓸 뻔했으나 후반 33분 여민지(수원도시공사)가 만회 골을 뽑아내며 유일한 득점을 남겼다.

/연합뉴스